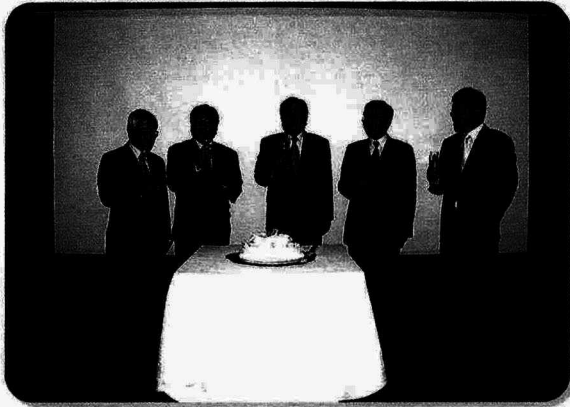


● 협회 동정



업적을 기리고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협회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대표 이용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님들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 중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은 2007년도가 제2차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사업추진의 원년이 되는 해로서 회원지원사업 중 전문가 인력풀제도 도입, 교육사업 중 종사자교육의 사이버교육 도입과 통신교육의 확대실시 및 한중일협력회의 홈페이지 구축 등 국제협력사업 강화

등을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올해보다 약 5%가 증액된 1,987백만원 예산규모의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내년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그 밖에도 「연회비 체납회원 조치계획(안)」에서는 체납회원에 대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특전 및 제반 권리(정관상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의결하여 보다 내실있는 협회 운영과 성실 회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다.

당초 계획된 의안 이외 긴급의안으로 고 박익수 초대회장의 유족 돕기 의안이 발의되어 김철중 당 협회 부회장(새한산업주식회사 회장)의 특별성금과 함께 금일봉을 마련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당 협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재 구성하여 협회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협회회관 확보사업을 금년내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회의 종료 후 이날 생신을 맞는 채화목 협회장의 탄신 자축연을 갖고 산회 하였다.

박익수 협회 초대회장 별세



박익수 초대 협회장이 11월 2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의 영결식은 30일 분당서울대병원 빈소에 서 갖고 용인시 용인공원묘역원에 안장되었다.

고인은 1985년 5월 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정부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 수출

입요건확인업무 위탁을 시작으로 하여 협회가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조성과 안전관리를 보다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촉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민간차원의 구심점 역할을 정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고인은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의 전신) 원자력 발전계획위원회위원장과 원자력산업회의 이사를 거쳐 제6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한국원자력창업사 ▲한국원자력측면사 ▲한국원자력창업비사 ▲과학기술의 사회사 ▲진실은 오히려 모순속에 ▲과학의 반사상 등이 있다.

2006년도 2차 RI/방사선 전문강좌 개최



11월 22일(수)~24일(금) 제주대학교 방사선응용 과학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을 대

상으로 RI/방사선 전문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좌는 원자력법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계획 (KINS 김창범) ▲RI안전규제 현안 및 개선방향 (KINS 이재성) ▲안전관리사례발표(각 대학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계측장비실무(자연과학(주) 김도식) ▲LSC 원리 이해 및 사용(KINS 김용재) ▲방사선모니터링(KINS 장재권)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금번 교육은 2006년 제2회 강좌로서 총 21명이 참가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년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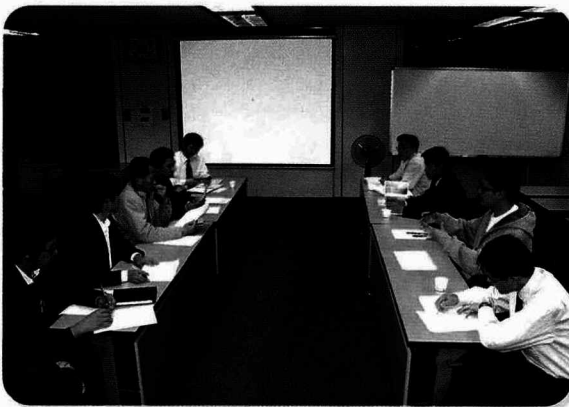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 10월 20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방사선안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 협회는 이와 관련 이미 2004년 방사선작업종

사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시행을 위해 정부에 교육시행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I관련 면허자용 교재개발관련 회의 개최



RI관련 면허자용 교재개발관련 회의가 11월 8일(수) 협회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사업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중 「면허자용 시청각 방사선교육훈련 교재개발」과제(연구기간: '06.3.1~'07.2.28)로 RI 관련 면허자의 방사선안전관리 및 안전취급에 활용할 수 있는 면허자용 교육용비디오를 개발하는 것이다.

동 회의에서는 동영상촬영에 대한 시나리오 검토와 촬영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촬영장소로는 방사선안전관리업무 중 ▲삼성서울병원 : 인력관리, 시설관리 ▲연세의료원 : 배수시설 ▲원자력의학원 : 배기설비 부분에 대한 촬영을 담당해 주기로 하였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 중에 촬영을 마무리하며 1월 중에 편집완료 예정이다.

신년(정해년) 캘린더 및 다이어리 제공

협회는 2007년도 다이어리 및 캘린더를 회원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일제히 배포하였다.

동 다이어리 부록편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방사선중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의 시스템 이용안내를

수록하는 한편 자주 이용하는 방사선방호정보 등을 지난해에 이어 구성하였으며, 캘린더에는 2007년 협회에서 수행하는 전 교육일정이 수록되어 있다.

●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고준위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가 연구소 내 부지에서 ‘지하 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준공식을 갖고 시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KURT는 향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될 경우에 대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타당성과 안전성 적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기초 연구시설이다.

KURT는 1997~2002년간 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중장기 연구결과 고준위 폐기물 기준처분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기준처분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설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전 부지조사와 시설 설계를 마친 뒤 2005년 3월 지하처분 연구 시설 건설에 착수해 1년 8개월 만에 준공식을 갖게 됐다. 총 사업비 34억 원이 투입되었다.

KURT는 원자력연구소 부지 후면 산 중턱에 폭 6m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으로 굴착된 총연장 255m의 지하터널로 지표로부터 90m 깊이의 화강암반 내에 위치하고 있다. 180m 길이의 진입터널과, 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모듈 75m(좌측 연구모듈 30m,

우측 연구모듈 45m)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KURT를 이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들이 실제 처분장에 적용되었을 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암반 내 균열을 통한 유체 이동, 지하 환경에서 이온 및 콜로이드의 거동 연구 등을 통해 일반 대기와는 다른 지하 환경의 지하수 체계와 지질 조건 등에 대한 분석, 지하 구조물의 장기적 안정성 평가, 지하수의 화학적 조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KURT는 향후 고준위 폐기물을 지하에 처분하는 경우에 대비, 지하수의 흐름 등 심부 지하환경에서 각종 물질의 거동을 실험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일반 염료와 소금물(NaCl) 등을 사용하게 된다. 시설 내에서 고준위 폐기물은 물론,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돼 방사성 물질의 진입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 조건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운전중인 원전은 20기로 2005년말 현재 원자력 발전소 4개 부지(고리 영광 월성 울진)에서 연간 700여톤의 고준위폐기물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폐기물처분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처분의 안전성 확보를 현상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다.